



호흡기계통 질병관리에 만전을

〈편집부〉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육계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국면에 처해있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육계산업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생산비선 이하에서 거래가 되자 농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료량을 대폭 줄이거나, 질병관리에 매우 소홀한 채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이같이 불황의 주기에 따라 질병도 수십년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최근 처럼 농장관리가 소홀해지면 육계값이

다소 회복될 때에 질병발생이 높아져 또다 큰 피해를 입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가격이 폭락되어 다소는 관리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농장에 질병이 만연되지 않게끔 기초적인 방역관리를 해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하를 하고 생산조절을 위해 계사를 비워둘 때에도 평시와 같이 완벽한 청소를 한 후 계사 및 기구를 완전히 세척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육추에 사용될 연료, 깔짚, 소독약 등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여 사

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 온도관리

병아리가 입추될 계사는 병아리 도착 1일 전에 충분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준비가 필요하다. 온도계는 항상 병아리의 등높이에 설치해두면 된다.

초생추는 부화기 속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보온력이 낮아 저온에 대한 온도조절 능력이 약하여 육추초기에는 부화기의 온도에 가깝도록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고 일령이 증가하면서 체온조절이 가능해지면 주령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면 된다(표 1).

표1. 주령별 육추온도

주령	육추온도	계사온도	주령	육추온도	계사온도
1	35°C	24~27	5	23°C	20~23
2	32°C	23~26	6	폐온	18~21
3	29°C	22~25	7	"	"
4	26°C	21~24	8	"	"

2. 습도관리

병아리가 입추된 후 7~10일간은 습도 조절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 육추초기에는 실온이 매우 높고 건조해지기 쉬워 습도가 부족할 경우 병아리는 소화불량, 발육부진이 일어난다.

계사내의 상대습도는 60~70%를 유지해야 하며 습도계를 비치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깔짚관리

깔짚은 닭이 생활하는 바닥이므로 청결한 것일수록 증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왕겨, 짚, 톱밥 등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목재짚이 등장하고 발효제까지 첨가하여 인력난 및 연속출하로 깔짚을 높이 쌓아가며 사육을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질병발생에 조심을 해야 한다.

우선은 무게가 가벼워야 하고, 닭의 크기에 따라 깔짚의 입자 크기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 깔짚의 조건중 흡수력은 높은 것이 양호하며 건조도 빨리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물질은 좋지 못하다.

깔짚은 가능하면 닭이 출하되면 밖으로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사육중에는 100m²당 550kg의 비율로 깔아주면 된다.

4. 급수관리

병아리가 도착한 후 첫 4시간 동안은 5~10%의 설탕물을 급수해 주는 것이 병아리의 활력증진과 폐사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준다. 또 처음 며칠간은 수온을 24°C 정도로 유지하여 주고 사료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온을 낮춰준다. 급수기의 수는 원형 급수기의 경우 1,000수당 지름 38cm 짜리 10개를 놓아주며 막대형 급수기는 제조회사에 따라 길이나 형태가 다르므로 제조회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수당 1.2cm(한쪽면) 정도의 급수공간을 계산하여 비치한다. 급수기는 병아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병아리가 성장함에 따라 병아리의 등높이를

높여 주며, 항상 신선한 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병아리의 음수량은 실내온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2는 주령에 따른 음수량으로서 매일의 음수량은 병아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계사의 수원에 수량계를 설치하여 매일의 음수량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표2 브로일러의 음수량

주령	음수량/100수/1일	주령	음수량/100수/1일
1	1.88 ℓ	5	9.46
2	3.76	6	11.35
3	5.68	7	13.24
4	7.57	8	15.14

도착 4시간 이후부터 사료를 급여하거나, 손으로 째켜어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료를 반죽하여 급여하면 병아리의 탈수증을 막을 수 있다.

첫모이는 병아리상자 뚜껑, 사료통바닥 또는 골판지 등에 뿌려주며 모이를 뿌려주는 면적은 육추면적의 2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모이통의 수는 원형급여기의 경우 1,000수당 지름 38cm짜리 15~18개를 설치하고 막대형은 수당 2.5cm(한쪽면)로 계산하여 설치한다. 모이통도 병아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물통과 번갈아 놓아준다.

사료의 허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이통의 높이를 병아리의 성장에 따라 조절해 주고 1회에 급여하는 사료의 양은 모이통 깊이의 1/3이하가 되도록 하여 자주 급여하는 것이 사료의 허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식욕



을 촉진하여 성장율을 높여 준다. 모이통의 사료를 급여하는 높이에 따라 허실되는 사료의 비율은 모이통깊이의 2/3가 되게 급여하면 10%, 1/2이 되게 급여하며 3%, 1/3이하로 하면 1% 정도이다.

5. 질병관리

우리나라의 육계사는 겨울철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과다한 밀폐를 하여 환기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온이 잘 안되는 농장일수록 출입구를 제외한 전 부분을 비닐로 둘러싸 온도 유지에만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환기불량으로 호흡기 계통의 각종 질병이 유발되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세균성질병으로 전염성 코라이자는 주로 11~1월에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병인데 상부기도와 구강, 기타 소화기에 또는 눈에 염증을 일으켜 육성을 저하로 경제적 손실을 준다.

이 병의 전과는 대부분 음수나 사료를 통

해 이루어 지지만 병계와의 접촉이나 공기 전염도 되고 있다. 계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은 마이코플라즈마로 일반 세균에 비해 다소 작은 그람음성균인데 이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과 마이코플라즈마 사노비아의 감염에 의해 만성 호흡기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CRD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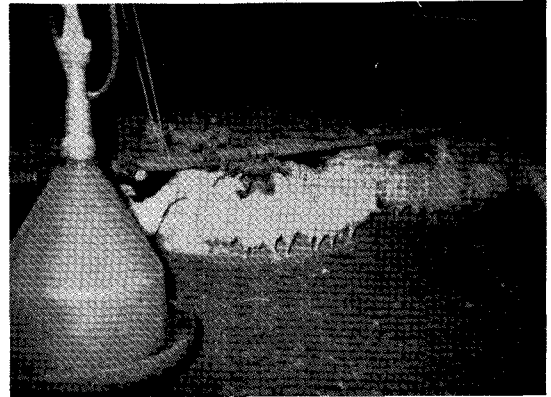
닭에는 무증상으로 감염되어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감염되면 발육이 지체되고, 사료효율이 저하되는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계절에 걸쳐 감염되나 가을부터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히는데 부화장이 다른 병아리를 혼합 사육하지 말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 계사내의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염성 관절막염은 마이코의 일종인 마이코사노비아에 의해 일어나는 병으로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6주령에 많이 발생하는데 호흡기 감염증이나 출혈증과 합병증을 일으킨다.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뉴캐슬병이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다. 폐사율이 아주 높은 급성 전염병으로 심한 호흡기증상과 연변, 호흡기 및 소화기계통의 출혈,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며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계사를 항시 청결히 하고 출입자의 엄격한 통제, 소독과 백신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일단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다.

전염성기관지염은 전염성이 강하고 급성의 경과를 취하지만 복합감염 없이는 폐사



하지는 않고 발육장애, 산란저하 등으로 손실을 입힌다. 품종, 일령에 관계없이 연중 발병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호흡기에 강한 병원성을 가진다. 위생관리 및 백신접종으로 예방 및 치료를 한다.

전염성후두기관염은 폐사율이 높은 급성 호흡기질병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일부 닭에서 혈액이 섞인 삼출물을 토하는 것이 특징이며 법정전염병이다. 품종, 일령 및 계절에 따라 감수성의 차이는 있으나 한랭기에 발생과 폐사가 많다.

이 밖에도 겨울철에 심하게 발병하는 질병은 많지만 양계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대책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질병을 중심으로 하여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현대가금학)